

진안용담호 가치·희생 공감

진안군, 용담호 수계 8개 시·군과 협력 다짐... 수물민 희생 기억하며 상생 미래 모색

진안군은 17일 진안고원 치유숲과 진안용담댐 일원에서 진안용담호 수계 8개 시·군 부단체장을 초청해 '150만 생명수 진안용담호 수계 부단체장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진안용담댐은 전북과 충남지역 약 150만 명의 생활·공업용수를 책임지는 핵심 수자원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용담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물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진안용담댐의 맑은 물을 함께 이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8개 시·군(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금산군, 서천군)이 '현우를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자원 상생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간 연대와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닌, 용담호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지역들이 수원지역의 가치와 희생을 공감하고 맑은 물 보전과 상생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



진안군은 17일 진안고원 치유숲과 진안용담댐 일원에서 진안용담호 수계 8개 시·군 부단체장을 초청해 '150만 생명수 진안용담호 수계 부단체장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치유테라피를 체험하며 진안의 치유자원을 경험하고, 산골에찬 오찬과 청류(淸流) 차담회를 통해 용담호 수질보전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별 물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제2회 진안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K-water 용담댐지사와 함께 용

담댐 정상부를 둘러보며 기후위기 시대 안정적인 물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용담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 실천 의지도 다졌다.

특히 수물민 만남의 날은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맑은 물의 가치를 누리는 모든 지역이 그 의미를 공감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성과

장수군, 양파 줄기절단기 첫 현장 시연 성공

장수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한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양파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은 노동집약적인 양파 재배 과정의 기계화를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양파 재배 농가와 농기계 업체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임대 농기계인 양파 줄기절단기의 첫 가동 및 현장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해 판매 3개 작

목반을 대상으로 양파 정식기와 수확기, 줄기절단기 등 양파 재배 전 과정에 활용되는 기계화 장비 12종 44대를 장기임대 지원한 데 따른 현장 적용 사례로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앞두고 현장에 처음 투입된 줄기절단기의 작업 성능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용 방법을 공유하며 양파 재배 기계화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최훈식 장수군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계화 장비 활용 현황을 살피는 한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건강한 여행지 진안' 보건의료 정보 한눈에

진안군은 2026~2027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건강한 여행, 안전한 진안'을 주제로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과 식품접객업소 306개소, 민박 70개소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진안 QR코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며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안내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진안군보건소 홈페이지로 연결돼 최신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수칙,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치와 연락처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중 필요한 건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편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6~2027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여행지 진안'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귀농인 안정적 정착 돕는다

무주군,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 구입 지원 추진

무주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최대 7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 귀농인은 도시지역(동 지역)에서 1

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진안·무주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 교원역량 강화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근)은 지난 16일 진안문화의집 다목적공연장 마이홀에서 진안·무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6년 진안·무주·장수 다문화교육 교원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수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진안·무주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권역 내 교원 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연수는 '내 안의 노란 톨립'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웰리스트 이해민과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윤창호 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했다. 첼로 연주와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인문예



술 기반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연형 강의의 통해 다문화교육을 감성적이고 예술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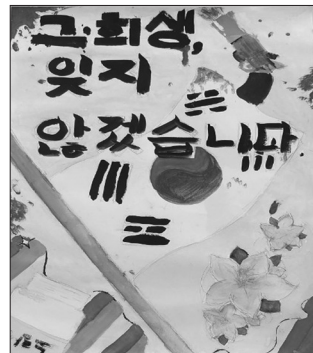
진안군, 호국보훈 홍보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진안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호국보훈 홍보포스터 공모전'에서 총 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보훈단체장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작품성, 주제 적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백운초등학교 5학년 손이수 학생의 '잊지 않겠습니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오천초등학교 1학년 유가을 학생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조립초등학교 1학년 한



자유 학생의 '잊지 않은 희생'과 동향초등학교 4학년 윤태광 학생의 '우리를 위해 감사합니다'가 선정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 최북미술품, '잠시 꽃이 되는 순간' 전시

무주 최북미술품이 '잠시 꽃이 되는 순간' 전(展)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꽃을 소재로 한 한국화와 서양화 작품 36점을 선보이며, 오는 8월 17일까지 열린다.

전시 참여 작가는 김주현, 최분아, 최지영 작가로, 각기 다른 표현 언어와 표현 방식을 통해 꽃이 지닌 생명의 에너지와 치유 감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냈다는 평가다.

김주현 작가는 한지 등의 재료를 활용해 여동 속 빛의 기억과 어머니의 정원을 바탕으로 피고지는 꽃의 생명력을 표현했으며, 최분아 작가는 '경허함의 향기로' 등 주변에서 마주한 꽃들을 단순화된 구성과 오일 드립링 기법을 통해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을 내걸었다. 최지영 작가는 한지 위에 번질을 통해 완전히 드러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꽃의 형상을 삶의 경계와 사람으로 흐르는 감정을 담아 깊은 공감과 사유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지역 일곱벌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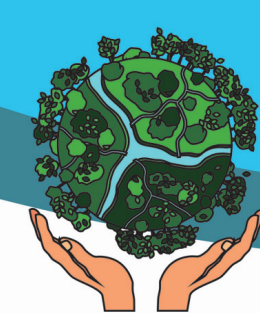
장수군은 번암초등학교와 번암마을 일원에서 지역 내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농촌유학 관심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장수지역 일곱벌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가 주관한 행사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으며 작은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수 농촌유학 설명회'와 함께 진행돼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가족 30여 명이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는 봉화체육관에서 지역 내 7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도시 초청 자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협동 놀이가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번암면 황토길과 백용성 조사기념관 등을 탐방하는 미션 투어를 수행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